

1971

제12회 전국민속경연대회

10. 28~10. 30

출 연 안 내

1. 英陽원놀이

〈一名: 서당놀이〉

2. 河回別神굿

3. 농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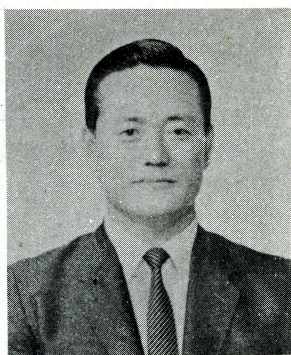
總 指 揮 : 慶尚北道文化公報室
指 導 : 藝 總 慶 北 支 部
出戰團體 : 嶺南大學校. 金泉農高
作品導演 : 李 在 春
場 所 : 全 北. 全 州 市

경상북도

인 사 말

풍요의 가을을 맞아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유서 깊은 고장 전주에서 열리게 된것을 참으로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무릇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예술은 언제나 그 겨레의 『열』을 바탕으로 하여 자라왔으며 또한 겨레의 정신적 지주는 언제나 문화예술에 의해서 대표되고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우리 겨레의 먼 조상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결정된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민속예술'이 오랫동안 무관심과 천대 속에 방치되어 그 원형마저 사멸될 위기에까지 직면해 왔던 것은 참으로 우리의 수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의 과감한 문화예술 육성정책으로 겨레의 고유한 미를 발굴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재확인하며 그 전통적 가치를 점호하게 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중의 새로운 이해와 날로 고조되는 민족문화에의 관심은 경하해 마지 않을 반가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볼때 이번 베풀어지는 이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의의는 그만큼 클뿐만 아니라 민족예술의 밝은 앞날을 약속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창달과 중흥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의의 있는 대회를 계기로하여 더욱 민속예술의 정화를 겨루고 교류시켜 우리의 민족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울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이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에게 경상북도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71년 10월 일

경상북도지사 구 자 춘

출 연 種 目

① 英 陽 원 놀 이 <一名: 서 당 놀 이>

考證 嶺 大 教授 金 宅 圭

安東敎大 教授 成 炳 禧

演出 藝總慶北支部 李 在 春

事 務 局 長

出戰團體 嶺 南 大 學 校

『원놀이』은 주로 음력 正月 초순 農閑期인 新年 歲初에 上演되었다. 古來氏族 단위로 形成되었던 慶北 北部 일대의 부락에는 正初 十五日까지 家家戶戶를 방문하여 세배를 드리는 것이 풍속이었다. 正朝 茶禮도 끝나고 세배도마쳐 歲饌 歲酒도 풍성한 正初는 자못 한가하여 동리의 靑年들은 三三五五 한자리에 모여 원놀음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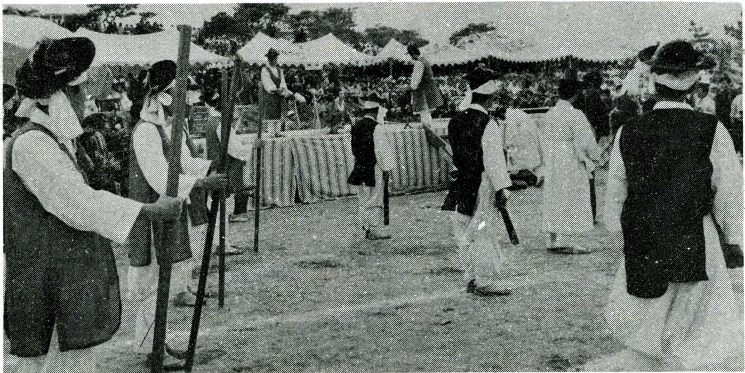
원놀음도 農閑期임으로써 농사에 관계되는 內容이 많았고 純粹 娛樂로서 演行되었던 당시에는 農과의 관계가 밀접한 中心 內容이었으나 차츰 그것이 확대 발전한 후에는 一種의 社會福祉의 意味로 轉變되어 社會의 物議를 惹起시킨 듯 하다.

이 원놀음의 舞台는 주로 富農의 대청이나 頑老의 叱責을 피하기 위하여 鄕
 낭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달밤은 正元에는 부락 광장이나 丘陵에서 衆人 環視
 裡에 演戲되기도 했다. 그러나 後代에 와서 部落單位를 벗어나서 數個部落의
 共同組織일때는 자못 큰 놀이가 되어 이 부락 저 부락을 巡回하면서 各戶마다
 들어가서 募金 募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後代의 원놀음은 소박한 遊娛
 에서 逸脫되고 舞台도 一定하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乞粒』과 같은 내용의 것
 으로 변모하였다.

登場人物은 李朝 下位 官衙의 所屬員 즉 元(守令 郡守 縣監)以下 鄉里를, 參
 席人員으로 적당히 配役되되 參加人員에 따라 원과 六房官屬만 配役하는 수도
 있고 人員이 少數일때는 원과 吏房 刑房 羅卒 使令程度로서 진행하기도 했다.
 完全構成일때는 郡守以下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刑房과 通引2名 數名의 使令
 官奴 官婢 日守 守廳妓生(女裝)에 이르기까지 문란하고 타락한 李朝 後期官司
 를 그대로 모방 구서하기 위하여 單位部落 靑壯年이 총동원 되었다. 그보다
 더 대규모일 때는 樂工이 동원되고 풍악을 울리며 나아가면 郡守 行次 威도가
 엄숙했으며 辟除소리가 온 부락에 들렸다고 한다.

우리의 民俗劇台詞가 대체로 口傳되어 命脈을 이었으며 公演환경에 따라 即
 興的으로 台詞를 변경하거나 插入하는 것이 많았다. 원놀음도 물론 一定한 脚
 本도 없으며 大部分 即興의이었으나 사전에 다소 준비는 하였다고한다. 農民의
 놀이이라 農業과 관계가 不無했으나 主要内容은 어디까지나 地方守令이 專制
 하는 行政 軍事 司法 租稅 賦役등의 범위 안에서 骨子가 채택되었다. 賀禮가
 끝나면 원이나 아래 吏屬들은 즉시 縣民의 違法事實 如否를 묻고 犯法者를 出
 頭케하여 추궁하는 것인데 그속에는 杻杻나 유머가 곁들어 폭소를 자아내기
 도 했다.

李朝 官衙의 犯罪搜查는 告訴 告發 糾彈 犯罪認知로 行하였으니 糾問主義
 自白強要로서 裁判하였다. 원놀음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고 1899年과 1900年에 上演하기 위하여 郡守協力下에 놀이 준비를 하였
 을 때는 郡內의 各戶家의 非違에 대한 情報를 미리 수집했다하니 民衆의 아름
 다운 遊謔의 놀이가 軌에서 상당히 이탈했다고 할수 있다.



(본 英陽원놀이에 대한 正確한 提報를 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趙 獻 基	씨	<91歲>	英陽郡 日月面 注谷洞
朴 長 壽	씨	<89歲>	聞慶郡 山北面 거산리
朱 武 錫	씨	<87歲>	英陽郡 靑杷面 水曲洞

出演者

고 을 元	……	변 元 基	수 령	……	박 창 世	암행어사	……	하 해 진
이 방	……	정 병 택	형 방	……	정 윤 곤	예 방	……	박 용 태
호 방	……	손 규 만	공 방	……	정 광 욱	병 방	……	최 윤 학
서 기	……	배 태 길	암이	……	김 회 승	풍 언	……	안 용 건
풍인 子	……	김 석 원	통인 甲	……	이 강 원	통인 乙	……	의 흥 완
사령 甲	……	김 욱 식	사령 乙	……	지 상 호			

外 40 명

② 河回別神굿

出戰團體 嶺南大學校

河回別神假面無劇(世稱:河回別神굿)은 慶北 安東郡 豐川面 河回洞에서 옛날에 행하던 原始宗教의 祭典行事인데 每年 一次 陰 正月 초순에 洞後高두上에 있는 城畵堂 國神堂 三神堂에 順次로 祭禮를 執行할때 儀禮의인 탈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이 『河回別神굿』은 62年度 第1回 全國民俗競演大會에 出戰한바 있으나 이 놀이의 特異한 點은 탈을 다른 地方에서는 그때마다 만들어 쓰고 쓰거나면 燒却하는데 河回의 假面은 世世相傳함이다. 現在의 것은 그 彫刻의 솜씨로 보아 高麗以前에 製作된 것으로 탈 12個中 3個는 분실하고 現在 9個가 남아 있으며 興行方法도 祥傳못하나 殺生의 戒로 <白丁> 妄言의 戒로 <초랭이> 不坐 高廣大床 即 傲慢의 戒로 <양반> 各人物이 登場하여 社會의 不美로운 裏面相을 素材로하여 觀衆들로부터 反省을 촉구하는 諷世의인 것이며 演技의 內容도 伸縮性이 있다.

이 假面舞劇의 脚本은 一定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科場은 一種의 式順처럼 定하여져 있으나 台詞도 科場의 趣旨에 어긋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即興의으로 꾸미었다.

第1場에서 第12場까지의 科場은 다음과 같다.

第1場<降神> 第2場<주지> 第3場<삼석놀이> 第4場<破戒僧> 第5場<양반·선비> 第6場<살림살이> 第7場<殺生> 第8場<還財> 第9場<婚禮> 第10場<新房> 第11場<헛천굿> 第12場<堂祭>

出演者	신 장 대……이 옥 재 무 너……김 풍 자 주지 甲……김 기 영
	주지 乙……이 길 우 양 반……윤 영 호 신 비……장 창 우
	중 ……남 두 회 이 매……서 진 영 초 랭 이……박 상 일
백 정……박 창 호 각 씨……맹 선 회 분 네……김 판 규	
할 미……박 경 애 소 甲……김 기 영 소 乙……이 길 우	

③ 農 樂

出演團體 金泉農業高等學校

慶北 金泉은 옛부터 이름난 鑰器의 產地였다. 그런데 農樂의 主樂器가 鑰器 製品이란데 緣由하여 發展된 『金泉쇠』는 이웃 고을 善山과 雙壁을 이루어 他的 追縱을 不許했던 한때도 있었다. 그러나 李朝의 衰殘과 더불어 밀어닥친 開化風潮로 軍樂으로 행세하던 農樂이 軍樂隊로 변하고 官中 風樂마저 그 支위를 감추게 되니 農樂은 乞軍(굴래)으로 불리워지고 名節이나 들놀이 풍물로 전락되어 『열두가락』이란 말만 남겨 놓게 되었다.

이에 金泉農高에서는 民俗 발굴의 使命感에서 七〇年 六月 農樂隊를 創設 일반이 賤視하고 있는 이 農樂을 순수한 學生들의 손으로 藝術의 境地에 까지 끌어 올려 各文化祭등에서 數次 最高賞을 받은 바 있다.

出演者 김 내 숙 외 38 名



第12回 民俗藝術잔치에 즈음하여

그윽한 菊花 향기 속에 全國民俗藝術의 잔치가 화려하게 傳統의 고장에서 펼쳐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解放後 太平洋의 黑濤처럼 도도히 밀어닥친 西歐의 浮薄한 風潮 앞에 國民大衆의 無批判한 迎合主義와 分別없는 模倣이 겹들어 이나라 文化의 向方은 갈피를 잡기조차 어려운 實情이었읍니다. 그러나 政府의 文化藝術 育成施策으로 우리가 오래 잊고 있었던 것과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된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民俗開發이란 단순한 復古 내지 好事趣味가 아니다. 民俗이란 先祖때부터 連綿히 계승되어오는 血脈이고 生命力인 동시에 그것은 또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呼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다 널리 보다 많이 알림으로써 民族中興의 歷史的創造의 理念을 導出함과 아울러 우리 文化의 個性을 世界文化의 一環으로서 융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이번 本道에서는 이러한 뜻에서 지금까지의 만네리즘을 止揚하고 民俗藝術을 보다 藝術的 境地에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全種目 出演에 純粹한 學生을 動員키로 했읍니다.

끝으로 이 大會에 參加하신 분들에게 深甚한 감사를 드립니다.

1971年 10月 日

藝總慶北支部長 朴 暘 均

唐 音 〈抄〉

五 音 唐 音

易 水 送 別 (駱賓王)

此 地 에 別 燕 丹 하니
壯 士 髮 衝 冠 이라
昔 時 人 已 沒 이나
今 日 水 猶 寒이라

自君之出矣 (張 九 齡)

自 君 之 出 矣로
不 復 理 殘 機라
思 君 如 滿 月하야
夜 夜 滅 清 輝라

七 音 唐 音

十五夜望月 (王 建)

中 庭 地 白 樹 樓 鴉한데
冷 露 無 聲 濕 桂 花라
今 夜 月 明 人 盡 望하니
不 知 秋 思 在 誰 家라

渡 桑 乾 (賞 島)

客 舍 并 州 已 十 霜에
歸 心 日 夜 憶 咸 陽러니
無 端 更 渡 桑 乾 水하니
却 望 并 州 是 故 鄉이라

힘 찬 前 進

1982년 9월



알 찬 慶 北